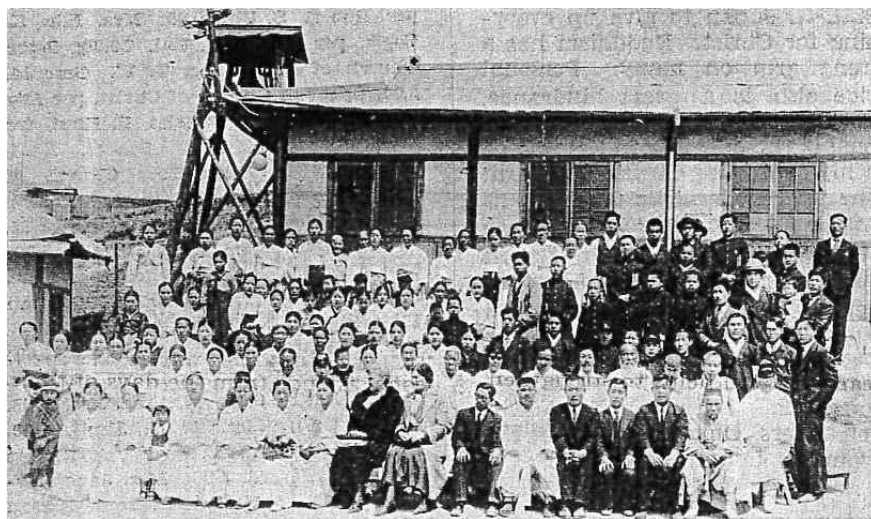




한국 선교를 위해
1935년 3월에 입국한
마이클 셸리 선교사는
3월 24일 송현교회를
방문했다. 셸리 선교
사 우측 딸 에이첼 옆
에 계신 분이 이인범
목사님이시고, 셸리
부인 옆은 공립교사
출신으로 셸리 선교사
와 선교부를 도왔던
김영배 집사님이다.



1937년에 세워진 종탑
은 일제의 탄압 속에
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일본이 전
쟁 물자 조달로 늦그
룻과 수저 하나까지
수탈해가는 상황 속에
서 교회 종탑도 예외
는 아니었지만 성도들
의 목숨 걸은 사투로
보존되어 8.15 광복을
맞아 교회의 종을 타
종하며 광복의 기쁨을
알렸다.



얼마나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었는지 이들의 기도
하는 모습에서 읽을
수 있다. 성도들의 감
동과 감격, 기쁨을 기
공 예배를 통해 하나
님께 감사드렸다.



건축 자재가 풍요롭지 못한 시절이지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길 바라는 소망으로 건축 중 찍은 사진이다.

동인천역풍경(1960년)



인천 시민의 애환이 담긴 동인천 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사진은 사라진 것에 대한 '고별'이 아닌 '재회'이고, 우리들의 그리운 추억이다.

송도유원지풍경(1960년)



학창 시절 수없이 걸어 갔던 소풍 장소이자 가족 휴양지 역할을 톡톡히 했던 송도유원지는 인천 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고, 이 곳을 찾는 시민의 발길은 수십년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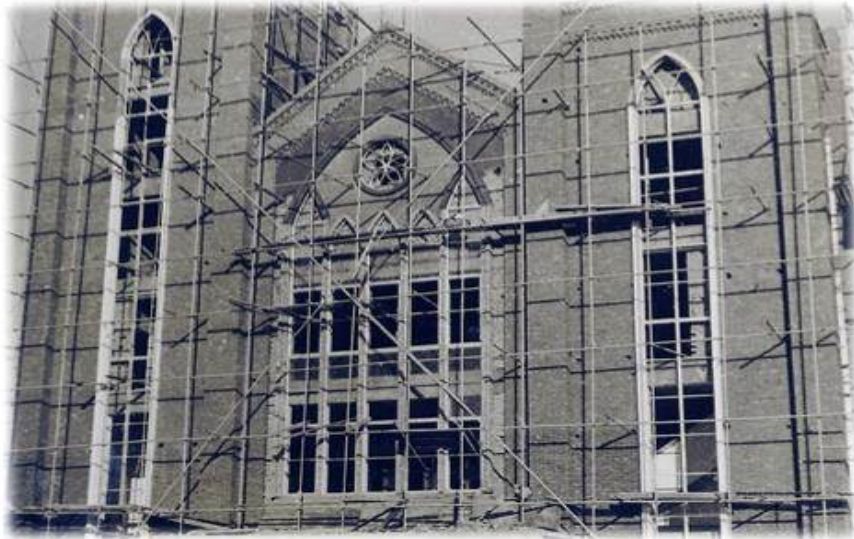
아름답게 지어진 2차
하나님의 성전 모습이
다. 하나님 교회라는
강한 믿음과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 땀과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회 성장으로 교회
건축이 불가피하게 되
자 3차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고 건축 기
공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 성전이 아름
답게 건축되길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
도의 땀과 수고로운
손길이 함께 하는 모
습이다.



성전 외벽 공사에 들어가 외벽 전체를 벽돌로 새롭게 단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성전 완공이 점점 가까와짐을 느낀다.



3차 성전 완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로 감격의 기쁨을 나누었다.



아직은 완전하게 건축된 성전이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과 앞으로도 함께하심을 굳게 믿고 부분적으로 시공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입당 예배를 드렸다.

인천극장(1960년대)



인천 극장은 1957년
신축 개관 되었다. 비
록 시설이 남루했지만
관객들의 인기만큼은
애관극장 못지 않았
다. 인근 화수동과 만
석동에 동일방직 등
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
들이 싼 값에 영화를
볼 수 있어 제법 관객
들이 많은 극장이였
다. 그러나, 2001년
CGV 극장이 생기면서
경영난으로 흔적도 없
이 사라져 아련한 추
억의 향수를 길게한
다.



완전한 3차 성전 모습
이 드러나며 마무리
작업이 한창 중에 종
탑이 설치되었다. 조
용히 부르시는 하나님
의 음성처럼 종소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
우는 듯한 여운이 가
득하다.



송현동에 우람한 모습
으로 하나님께서 3번
째로 우리에게 주신
성전 모습이다. 하나
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의 임재 아래 함께 예
배 드릴 수 있었기에
전도를 통해 많은 사
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



3차 성전 야외 주차장 모습이다. 지금은 그 자리에 비전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3차 성전 후 리모델링한 성전 입당 예배 사진이다. 남자 성도들은 정장으로 여자 성도들은 한복을 입고 하나님께 입당을 감사드리며 이 성전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하나님 자녀가 되길 소망했다.



송림1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교회 시설에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개설 운영했는데, 3명의 자원 봉사자가 상담 및 학습을 도와 줌으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었다.



교회 어르신들이 5층
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
되어 편리함을 주었
고, 종전보다 주차 공
간이 넓어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었다.



송현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게 되자 동구청
의 의탁과 보조로 어
린이집과 무료 경로
식당을 운영 하였다.
훗날 무료 경로 식당
은 교회 식당에서 운
영하면서 지역 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하나
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2013년 첫 삽을 뜨면
서 지금까지 일을 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며 완공되는
날까지 사고없이 무사
히 공사가 진행되어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
의 상징, 하나님 나라
의 비전의 성지, 참된
영성의 현장, 영적 리
더를 배출하는 거룩한
요람이 되길 기원했
다.



2014년에 완공된 비전 센터는 예배, 기도, 영성 및 체력 훈련 등의 공간으로 신앙심을 고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심신 수양의 장소로 유익하게 쓰이고 있다.